

사측 첫 제시안 미흡...SI·정년연장 등 핵심요구 무더기 유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1차 제시안 제출... 금속노조 “차기 교섭에 전향적 안 가져와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1차 제시안이 나왔다. 역시나 부족하고 미흡했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26일 오후 경주 다스 회의실에서 2026년 5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금속노조 요구안에 대한 첫 제시안을 내놓았으나, 대정부 요구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인공지능(AI)과 정년연장 등 핵심 요구안은 모두 제출을 유보했다.

금속노조는 사측의 미흡한 제시안을 지적하며 차기 교섭에서 핵심 의제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교섭 인사말에서 “제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오늘 안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오늘 제시안이 내심 기대가 된다”라며 “박근형 교섭 대표 외 다른 교섭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싶다. 진솔하고 진지한 교섭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형 회장은 사용자협의회 제시안을 설명했다. 이날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금속산별교섭 요구 네 가지 중 ‘산별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에 관한 내용만 제출했다.

사용자 측은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공동요구안 취지에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

다. 박근형 회장은 “각종 노사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시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에 정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69개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 입장에서 상당히 배려 있는 요구안” 이라면서도 요구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은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고 지부교섭에만 참여하는 사업장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인간중심 노동 실현을 위한 인센티브가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은 조합의 요구안 중 ‘정부 정책 과정에 금속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기존 3번 조항을 삭제했다. 사용자 측은 해당 조항이 4번 조항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삭제하고 4번 조항을 원안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인공지능(AI), 정년연장 관련 요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박 회장은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일정 부

분 안을 내지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 기조 등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해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도입과 국민연금 연계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계도 고민 중인 무거운 주제이자 정치권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사측 제시안을 짚으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실장은 사측이 대정부 공동요구안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별·지역별 교섭 촉진’이라는 문구를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인간중심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으로 수정 제안한 것에 대해 “해당 문구는 정부 부처의 공식 과제 내용에서 따온 것인 만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측이 ‘노사단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 3번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조합원들이 정부 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별교섭을 하는 노사단체가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테이블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정부뿐 아니라 사용자협회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는 만큼, 다음 교섭에서는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번 교섭에 인공

금속산업 최저임금관련 제시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상민 실장은 “초기업교섭 활성화 대정부 요구안만 제출된 상태인데, 다른 요구안도 차기 교섭에서 제시해달라”며 “특히 인공지능(AI)과 정년연장은 내부적으로 중시하는 의제인 만큼 조속한 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매년 법정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나 논의되는 관행을 올해는 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사측 첫 제시안을 살펴본 박상만 노조 위원장은 삭제된 3번 조항에 대해 “새로운 산업전환기에 자본은 노조, 협력사와도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산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틀을 만들자는게 핵심요구”라며 “다음 교섭 때는 보충된 안이 나왔으면 한다. 정년연장, 인공지능(AI) 관련 요구도 차기 교섭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라고 주문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마무

리 발언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이 모여 대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인공지능(AI)과 정년연장 관련 주제도 고민하고 있으니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정진홍 노조 경주지부장도 “사용자측 제시안이 미흡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주지부는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수가 많은 만큼 책임감도 막중하다”면서 “중앙교섭의 한계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타결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자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노조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6차 중앙교섭을 다음 달 2일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연다.